

AI는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기고

유구봉

포스코인재창조원 교수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사실 오래된 화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요즘 거대 AI의 등장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하고, 챗GPT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이상한 일도 아닐 것이다.

대형 AI 서비스인 챗GPT의 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 인간의 신체 능력과 업무 기초 능력을 활용한 직업들에서 심지어 정치까지 활용 사례가 알려지며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배리 파인골드가 챗GPT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세계 첫 인공지능(AI) 라디오 방송국이 등장했는데, AI로 지역의 교통이나 날씨 등의 여러 정보를 수집한 뒤 ‘GPT-3’로 대본을 작성하고, AI 음성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방식이다.

AI가 기자가 되어 언론 기사를 쓰는 일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해 온 많은 일들을 AI가 대체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인지 아니면 창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여러 측면이 있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보완하거나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I의 발전 속도와 범위, 인간의 적응력과 학습능력, 정부와 사회의 정책과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AI가 인간의 노동에 대해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며, 나아가 노동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좋은 품질의 댓가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AI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시간에 근로자들은 좀 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인력 부족에 의한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다.

AI는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개인화하며, 품질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AI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지루하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다. AI는 인간의 창의성과 협력성을 촉진하며, 새로운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AI는 인간의 역량과 자원을 최적화하며,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AI는 산업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소매, 전기 설비, 제조,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I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어내며, 경제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AI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AI가 인간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AI의 발전이 고용 증가와 소득 향상을 이끌며, 사회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AI로 인해

세계적으로 75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반면, 1억 3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AI로 대체되는 일자리 1개당 1.8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보면, 일부 사람들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AI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거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줄여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AI의 발전이 고용 감소와 소득 불균형을 야기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실직률이 증가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은 2025년엔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25%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고, 영국 옥스퍼드대는 미국 내 47%의 직업이 20년 안에 대체되거나,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AI가 많은 산업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군은 의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디자인 및 스포츠 관련 직업들이며,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직업들이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발휘하며 AI와 협업할 수 있는 인간중심 사고를 가진 감성적 창조 인재이다. 또한, AI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윤리적인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AI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社說

‘5·18 망언’ 정부·여당 인사 책임물어야

“헌법 수록” 윤 대통령 응답을

새 정부 들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3년. 그동안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까지 5·18과 관련된 숙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5·18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일부 인사의 그릇된 인식이 잔인하고 야만적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진행하는 행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한 ‘립서비스’였다는 것이다. 비굴하고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13일에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장이 국회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했

다.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는 단순하다. 1980년 정권을 탈취하려던 신군부의 음모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에 맞서 신군부가 총칼을 앞세워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이 그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무지다.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광주시민의 피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짓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이 무자비한 학살을 목격했고, 법원마저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18기념식에서는 ‘5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국민의 힘은 잇따르는 일부 인사의 망언에 사과하고 극우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5·18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리고 계승해야 할 정신이다.

영산강·낙동강 쌀 독성 물질 정부 대책을

환경단체 “공동조사” 제기

광주시가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원이 부족하자 영산강 물을 수도물로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 유역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 물을 끌어다 재배한 쌀에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서울에서도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영산강 인근에서 구매한 쌀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11월 낙동강 중·하류 권역 20개, 영산강 하류 3개 등 23개 쌀 시료(백미·현미 시료당 5kg)를 대상으로 이승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시료 20개 중 6개, 영산강 시료 3개 중 1개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됐다. 낙동강 권역 쌀 시료는 기준치의

498.3%(약 5배), 영산강 하류 쌀 시료는 328.3%(약 3배)였다. 환경단체는 국내 쌀 소비량을 고려해 체중 60kg의 성인이 계속 먹는다면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긴다고 주장했다. 가장 엄격한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 안전청(ANSES)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하루 섭취허용량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으로는 허용량의 12.4%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들 환경단체는 올해 초 식약처의 농산물 조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1월 쌀, 무, 배추 등 130건에 대해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녹조가 심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사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여 이들 단체는 정부에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영산강과 낙동강은 주식인 쌀 생산과 식수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조 독소 오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의 젖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점에서 환경단체의 주장을 경청해 정부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우리가 몰랐던 소녀의 정신을 되살리고 싶었다.” 2019년 조민호 감독이 만든 ‘항거:유관순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17살 독립운동가 유관순이 감옥에서 보낸 1년을 담은 영화다. 시종일관 차분하게 이어지는 영상 속 유관순은 지조와 용기, 신념의 화신이었다. 서대문형무소 비좁은 8호실 감옥에 투옥된 유관순. 잔혹한 고문과 핍박이 이어졌지만 끝까지 그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독립의 신념도 잃지 않았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광주의 윤형숙도 지조와 신념은 유관순에 못지 않다. 1919년 3월 10일. 본정통으로 불렸던 광주전면 작은장터(현 충장로)에서 일어난 광주3·10독립 만세운동에 나선던 수피아 학교 2학년 윤형숙은 출동한 일본군의 칼에 왼팔이 잘렸다. 하지만 윤형숙은 나머지 오른팔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 재판정에서도 그는 이름을 묻는 재판관을 향해 ‘나는 피 흘리는 계집 윤형숙’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의 나이 18살 때였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이런 윤형숙을 ‘남도의 유관순’이라 했다.

윤형숙의 삶은 불우했다. 수피아에 진학하기 전 외국인

선교사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그는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후 가혹한 고문으로 오른쪽 눈마저 멀었다. 어렵게 해방을 맞았지만 6·25전쟁 때 인민군에게 붙잡혀 손양원 목사와 함께 순교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춧돌로 뉘던 독립운동가의 믿을 수 없는 비극이다. ‘왜적에게 빼앗긴 나라 되찾기 위해 왼팔과 오른 쪽 눈도 잃었노라. 일본은 망하고 해방되었으나 남북 좌우익으로 갈려 인민군의 총에 간다 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는 그의 비문도 가슴을 저미게 한다.

광주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3·10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가 윤형숙의 모교인 수피아여고에 윤형숙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독립투사를 기리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책임이다. 작은 기념비가 주는 상징성도 크다. 하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산이 한계에 봉착해 추진은 더디다. 윤형숙은 짧은 인생동안 광주와 광주 젊은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광주에서 자랄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윤형숙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민의 도전이 아름답다. **이용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